

청암사 승가대학 “감격의 첫 졸업식”



청암사 승가대학장 지형 스님(맨 왼쪽)이 시건 스님에게 졸업장을 수여하고 있다.

“반갑습니다. 처음 청암사에 오니 승가대학 문을 열 때만 해도 집이 새는 것만 고치고 필요시설만 갖추면 졸업식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어느덧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0월 2일, 김천 청암사 대웅전. 청암사(주지 상덕) 승가대학(학장 지형) 제6차 불사회향 및 제1회 졸업식을 맞아 학장 지형 스님의 떨리는 목소

리가 경내를 휘감았다. 1987년 부처님의 해명을 이어갈 후학양성에 뜻을 두고 지형, 상덕 스님이 청암사에 온 지 20년 만에 처음 갖는 졸업식이다.

지형, 상덕 스님이 처음 청암사 승가대학을 열 때 함께 들어온 학인 스님은 겨우 16명. 청암사 승가대학은 어느새 1회부터 20회까지 337명의 스님을 졸업의식 없이 배출해온 것이다.

20년만에 행사 처음... 선후배 한자리

20회까지 학인 337명 배출, 곳곳서 맹활약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스님을 비롯해 직지사 주지 성웅, 해인사 강주 종목, 운문사 승가대학장 명성, 동화사 승가대학장 일호 스님을 비롯한 1000여 사부대중이 축하하는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주지 상덕 스님의 학사보고와 인사말씀, 졸업증서와 선물 수여, 훈화, 송사, 답사, 중창불사에 공헌한 분들에 대한 상패 수여, 치사, 격려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재학인 석현 스님(사교반)은 송사를 통해 “청암의 모든 것에서 선배님들의 땀과 손길을 느낄 수 있다”며, “이렇게 자랑스러운 청암을 현현히 내주시는 선배님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어느 회상에서든 당당한 청암인으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다.

약 20년 만에 청암사를 처음 찾았

다는 1회 졸업생 시건 스님(영천 적조암)은 답사를 통해 소지품을 트럭에 싣고 처음 청암사에 들어오던 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경전을 배우고 불사를 도우며 온전히 청암과 하나였던 그때를 회상했다. 그리고 후배 학인 스님들에게 “청암 도량이든든히 졸업생을 받쳐주는 법의 그늘임을 잊지 말고 즐겁고 충실한 강원 생활하라”고 부탁했다.

이날 교육원장 청화 스님은 “앞으로 청암사의 모든 대중들은 열심히 정진해서 거룩한 혼이 깃들도록 해주시기”를 당부했고, 졸업식을 맞는 스님들에게는 “중생들의 부름을 받고 다가가 중생들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세상을 아담답게 장엄해주는 꽃이 되라”는 축하의 말을 했다.

글·사진=배지선 기자



10월6일 저녁 촛불집회에 참석한 스님들이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친일재산환수법 제정하라”

“친일파 후손들은 재산 찾기를 중단하고 국회는 친일재산환수법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합니다!”

어둠이 짙게 드리운 10월 6일 저녁, 손에 손에 촛불을 든 사람들이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어린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친일파 이해당사자

“한국불교는 1600여년 동안 민족과 운명을 같이 해온 전통을 가지고 있다”며 “이해당사자들이 소를 취하였음에도 내원암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민족정기를 바로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친일파재산환수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열린우리당 최용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반민특위가 출범한 10월 22일 이전에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불자와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촛불집회 참석자들은 이어 ‘예쁜아이들’의 율동과 노래, 가수 정태춘·박은옥씨 등의 공연을 보며 친일청산의 마음을 모았다. 그리고 다 같이 외쳤다.

“친일청산 만세! 민족정기 확립 만세! 특별법 통과 만세!” 어둡던 과거의 역사가 촛불로 인해 환해지는 순간이었다.

유철주 기자

동방대학원 박사과정 신설

태고종 종립 동방대학원대학교(총장 정상욱)가 박사과정을 신설하고 정원을 100명에서 207명으로 증원했다.

동방대학원대학교는 이번 박사학위 과정에 서화문예학과, 미래예측학과, 자연치유학과, 요가명상학과를 신설했다. 총 정원은 39명.

또 석사과정에 정원 60명의 자연치유학과, 요가명상학과, 전통무속학과를 증설해 기존의 불교문예학과, 서화문예학과, 미래예측학과 정원 60명을 합해 총 정원을 120명으로 늘렸다. 4년만에 석·박사 학위를 수여받는 통합과정에는 총 정원 48명의 서화문예학과 미래예측학과 자연치유학과 요가명상학과를 개설했다. (02)745-2141

김원우 기자

선학원 설립 의미 짚어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은 10월 18일 오후 2시 우이동 보광사에서 ‘선학원 설립의 사적 의미 고찰’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의는 한국불교사 연구에서 외면 받아온 근·현대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근·현대한국불교사 연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02)734-9653

박익순 기자

동국대 이사후보 영배 스님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율택, 이하 종관위)는 10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61차 회의를 열고, 영배 스님과 통도사 한주 태봉 스님을 놓고 재투표까지 치르는 집전절에 영배 스님을 추천했다.

제60차 종관위원회에서 추천된 동국대 이사후보 상과 스님이 사비합에 따라 현 이사 영배스님이 다시 추천된 것. 이에 따라 동국대 이사회는 10일 조계종 임시중앙총회에서 현문 스님과 영배 스님 가운데 1명을 추천 동의받아 새 동국대 이사로 선출한다.

조용수 기자

니해서 추모 음악회

10월 16일 오후7시 수원포교당(주지 성관) 불교문화원 극락대원전 앞 특설무대에서 니해서 추모 음악회 ‘가을밤 재즈에 취해볼까...’가 열린다. 올해 2번째인 이번 추모음악회의 주제는 ‘인권’. 재즈 피아니스트 임광성 밴드, 재즈 싱어 김준, 김민정씨, 색소폰 연주자 최인씨 등이 출연한다. 김우영 시인이 인권시도 낭송한다.

강지연 기자

템플스테이 체험 크게 늘어

올 8월까지 3만7372명...연내 5만 넘을 듯

올해 템플스테이 참가자 수가 3만 7372명으로 집계돼, 작년 전체 템플스테이 참가자 수 3만 6902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현진)은 올해 상반기 템플스테이 참가자 수를 결산한 결과, “전체의 51%가 넘는 1만 9000여 명이 휴가철인 7, 8월에 템플스테이를 체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30

대 이전 참가자가 전체의 88%를 차지해 젊은 층의 참가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참가자도 작년 대비 1천여 명 이상 늘어난 4435명이 다녀간 것으로 드러났다. 템플스테이는 하반기에도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올해 안에 약 5만 명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은비 기자

“종교문화관광해설사제 신설을”

포교총책연찬회서 제기

우리나라 문화재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는 불교문화재. 이 불교문화재를 설명할 문화관광해설사를 보충하기 위해 종교문화관광해설사 제도 신설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실장 진명)이 10월 6일 개최한 제5차 포교총책연찬회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신설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한 권중서(조계종 포교사제)는 “종교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문화관

광해설사를 교육해 문제점과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교대학 2년 과정을 이수한 전국 1800여 포교사를 적극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신라문화원 진병길 원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제도의 불교에서의 활용방안과 종단적 과제’ 발표를 통해 “지나친 수익성은 종교의 세속화를 불러오고 포교에 부작용으로 작용한다”며 “사찰관광을 위한 전문적인 연구를 전담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은비 기자

불교-가톨릭, 음악으로 하나되어

육전 대성사(주지 혜철)와 육전성당(주임신부 광동철)이 9월 30일 ‘종교화합-대중과의 만남’을 주제로 합동음악회를 열었다(사진).

육전성당 합창단과 청년 합창단의 화음으로 시작된 이날 음악회는 김영수 신부와 그룹사운드, 테릴라 색소폰 중앙단 등이 출연해 흥을 돋웠으며, 불교 측에서는 도탈심인구 심인합창단과 지호 스님, 법민 스님의



법고와 승무 등으로 화답하며 화합의 분위기를 연출했다. 현명우 기자

학내 종교자유 실현 공익소송

종자연 등 소장 제출

학내 종교자유를 위한 공익소송이 시작됐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준비위원장 박광세)을 비롯한 4개 시민단체들은 10월 7일 ‘브리타니’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내 종교자유 실현을 위한 소송을 시작한다고 밝히고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종교 강요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받는 청소년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 마련을 미룰 수 없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학교가 어떠한 종교행위도 강요받지 않고 종교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는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철주 기자

군산 해성초교생 서울 체험

“이 곳에 대령이 살아요?”

“우 리 동네에도 놀이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초보교를 포함한 군산 해성초등학교 전교생 44명이 한국철도공사 청량리기관차사무소 불교법우회 초청으로 10월 4-6일 서울 나들이 체험을 했다. 기관사 아저씨들과 함께 하는 ‘꿈과 희망을 실은 사랑의 열차’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체험은 불교법우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개최돼 의미를 더했다.

청량리기관차사무소 불자들은 KTX를 타고 상경한 아이들에게 기관차 실물 견학을 비롯해 청와대, 경복궁, 국회의사당, 코엑스 아쿠아리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어린이대공원 ‘인체의 신비전’, 여의도 대한생명 빌딩 관람, 각종 현형행사와 롯데월드 관광 등을 제공했다.

허기림 불교법우회 법사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준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현대불교신문 창간 11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The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Hanmaum Seon Center

원장 대행 주지 혜원

사부대중 일동

▶ 본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62
전화: 사무처 031)470-3100
팩스: 031)470-3116
홈페이지: http://www.hanmaum.org

◆ 국내지원 ◆

- 광명선원 총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 4구 산 5-2
TEL: 043-877-5000 FAX: 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도 제주시 영평동 1500
TEL: 064-727-3100 FAX: 064)727-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522-1
TEL: 051-403-7077 FAX: 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201-5
TEL: 062-373-8801 FAX: 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927-7
TEL: 052-295-2335 FAX: 052)295-2336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32-274
TEL: 053-767-3100 FAX: 053)765-1600
- 충북영남지원 경남 김해시 진영읍 방동리 321-1
TEL: 055-345-9900 FAX: 055)346-2179
- 전주지원 경남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50
TEL: 055-744-1321 FAX: 055)746-7825
- 공주지원 충남 공주시 사곡면 신영3리 152-3
TEL: 041-852-9100 FAX: 041)852-9105
- 포항지원 경북 포항시 북구 우현동 13-1
TEL: 054-232-3163 FAX: 054)241-3503
- 청주지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295-7
TEL: 043-259-5599 FAX: 043)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포남 2동 1304
TEL: 033-651-3003 FAX: 033)652-0281
- 통영지원 경남 통영시 도천동 113-3
TEL: 055-643-0643 FAX: 055)643-0642
- 목포지원 전남 목포시 상동 952-19
TEL: 061-284-1771 FAX: 061)284-1770
- 문경지원 경북 문경시 흥덕동 592
TEL: 054) 555-8871 FAX: 054)556-1989

◆ 해외지원 Overseas Branch ◆

- U.S.A (미국 지원)
- New York (뉴욕플러싱 지원)
144-39.32 Ave. Flushing, NY 11354, USA
TEL: (1-718)460-2019 / FAX: (1-718)939-3974
- Washington D.C. (워싱턴 지원)
7807 Trammel Rd. Annandale, VA 22003, USA
TEL: (1-703)560-5166 / FAX: (1-703)560-5566
- Los Angeles (LA 지원)
1905, S. Victoria Ave. L.A, CA 90016, USA
TEL: (1-323)766-1316 / FAX: (1-323)766-1916
- Chicago (시카고 지원)
7852 N. Lincoln Ave. Skokie, IL 60077, USA
TEL: (1-847)674-0811 / FAX: (1-847)674-0811
- CANADA (캐나다 지원)
- Toronto (토론토 지원)
20 Mobile Drive North York, Ontario M4H 1H9, Canada
TEL: (1-416)750-7943
- ARGENTINA (아르헨티나)
- Buenos Aires (부에노스 아이레스 지원)
Miro 1575, cp(1406) Cap. Fed. Rep. Argentina
TEL: (54-11)4921-9286 / FAX: (54-11)4921-9286
- Tucumán (투쿠만 지원)
Av. Aconquija 5250, El Corte,Yerba Buena, cp(4107) Tucumán, Rep. Argentina
TEL: (54-381)425-1400
- GERMANY (독일 지원)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 (49-(0)2131)969551 / FAX: (49-(0)2131)969552
- THAILAND (태국 지원)
86-1 soi 4 Sukhumvit 63, Bangkok, Thailand
TEL: (66-2)391-0091
- BRASIL(브라질)
- Sao Paulo (상파울로 지원)
R. Newton prado, 540-Bom Retiro-CEP01127-000-São Paulo-Brasil
TEL: (55-11) 3337-5291